

특집논문

1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탐색

An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spiritu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유장춘(침례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영성의 개념

1. 영성의 정의
2. 영성과 종교의 개념적 차이

III. 사회복지/사회사업 실천에 대한 영성적 접근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의 건전한 복지활동을 위하여
2.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3. 한국교회의 왜곡된 영성의 변화를 위하여
4.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IV. 영성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1. 성경적 관점
2. 역사적 관점
3. 신학적/철학적 관점

V.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실천의 방법들

1. 미시적 접근: 클라이언트의 영성에 대한 임상적 관여
2. 거시적 접근: 기독교의 봉사적 영성의 강화

VI. 나가는 말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영성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탐색을 위하여 먼저 다양한 영성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회사업을 위한 영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활동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의 실용적 적용 방법들을 미시적, 거시적 방법론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미시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영성적 접근 방법들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대와 사정, 경청, 질문, 도구 활용, 기도 등의 방법론적 적용을 제시하였고 거시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에게 영성적 접근을 하기 위한 영적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들로서 봉사신학의 정립과 영성모델의 제시, 이타적 기도운동, 봉사목회의 활성화, 교회교육의 봉사커리큘럼 개발, 영성문화활동, 제도적 장치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n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spiritu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by Jang Choon Yoo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the spiritu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First, the work lists the various concepts of spirituality. Then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linking the two, spirituality and social work practice. third, it explains the relationship of these two biblically, theologically and historically.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spiritual approaches to social work practice in the context of micro and macro involvement. Micro involvement treats the spiritual approaches to the direct work with the

clients such as engagement, assessment, questioning, active listening, using simple tools for conversation, etc. Macro involvement refers creating the spiritual circumstances for the use of spiritual approach methodologies to the social work practice. The macro involvement includes theological framing of social service, suggesting spiritual models, campaigning prayer for others, activating the social ministry, developing social ministry curriculums in the church education, and setting spiritual policies in the social work process.

Key words: 사회복지실천, 영성, social work practice, spirituality

I. 들어가는 말

아직까지 영성을 사회복지실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일종의 타부처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복지실천 부문에서 영성의 개입을 인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먼저 영성의 개념화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영성'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비슷한 이유로서 영성이란 것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과학도 일종의 도그마처럼 완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지 않으면 비록 옳다고 느껴져도 받아들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는 사회사업가의 주관적 관점이나 신념이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실천가의 영성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편견이나 왜곡된 조정에 빠질 수 있는 유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넷째는 영성이 실천가의 품성이나 자질에 관련된 것이지 방법론적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전문성으로 인정받을 만큼 연구와 학문적 준비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Canda & Furman, 1999: 63-64).

이러한 부정적 인식들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나의 영역이 개척되는 단계에서는 언제나 나타나곤 했던 문제들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영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인간은 점차 합리주의의 비합리적 모순과 이성적 사고의 그 협소한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사회사업 학문에서 단선적 사고(linear thinking)로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사회적 문

1) 유장춘: 침례교 목사/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M.Div., M.S.W.,

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전통적 과학지상주의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박종삼 2002: 27).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영성을 연구하는 것은 분명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실존적으로 볼 때 참다운 지식은 탈존(ecstasy)의 경험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탈존이란 일상생활에서 당연시 되는 상계를 벗어난다는 뜻인데 현대사회는 이러한 탈존적 세계관이 하나 이상 공존할 수 있는 상대주의적 시대이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성은 과학과 합리주의의 상대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버어거 1979: 52).²⁾ 이제 직관에 대한 신뢰가 받아들여지고 신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서서히 자리 잡혀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는 점차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험적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버어거(Peter L. Berger)는 지식사회학적 방법을 통해 종교적 신앙이 갖는 초월성의 현실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초자연은 과연 죽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오늘의 과학적 전제로서 받아들여지는 초현실의 무가치성에 대하여 사회학적으로 도전하면서 현대사회의 대중은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도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는 해석을 초현실의 세계로부터 추구한다고 하였다(1979: 46-47).³⁾

따라서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해졌다. 그리고 사회사업 교육에서도 영성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커리큘럼 상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⁴⁾ 또 1990년에는 이미 'Society for Spirituality and Social Work'라

2) 이러한 관점을 버어거는 '상대주의의 상대화'라고 설명한다.

3) 버어거는 미국학생들의 80%가 종교적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표명하고 49%가 유대 기독교적인 신앙을 고백했으며, 독일사람 68%가 신을 믿으며 86%가 기도한다고 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거의 50%가 정경이를 찾아가고, 6명의 한사람은 유행을 믿고 15명 중 한사람은 유행을 본적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는 학회가 결성되어 'Spirituality and Social Work'라는 저널을 일년에 두 번씩 간행하고 있다. 영성은 이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내면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경험적이고 실천적이며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깊은 영성의 세계는 우리들의 일상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신비의 세계, 내면적 세계, 초월적 세계, 개인적 영역 등으로 연상되는 이 영성의 세계는 또한 일상적 세계이며 외면적 삶의 영역이고, 내재된 현장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현실의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영성은 사회복지실천의 전제가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실천적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영성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회사업을 위한 영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후에 영성과 사회복지활동의 관계를 성서적/신학적/철학적 근거를 통하여 설명한 후 실용적 적용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논의의 성격상 신학적 방법과 사회과학적 방법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영성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4) 95년에 CSWE에서 제작된 Handbook of Accredi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에는 종교가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의 한 요소로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언급하였고, 99년도의 자료를 보면 미국의 사회사업 석사과정 가운데 16개 학교가 Spirituality와 종교에 관한 강좌를 독립시켜 개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사례들로서 St. Louis School of Social Service에서는: "Spirituality in Social Work Practice"를, The University of Alabama School of Social Work에서는 "Spirituality and Social Work Practice"를, Salem State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에서는 "Social Work and Spirituality"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었다.

II. 영성의 개념

1. 영성의 정의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 용어는 사전적으로 “신령한 품성 또는 성질”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나 ‘삶에 대한 보다 뛰어난 인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초월적인 지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종종 죽은 자의 영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매체를 가리키기도 하였다(민중국어사전, 1990; 기독교대백과사전, 1985: 690-1). 동시에 영성은 사랑, 겸손, 은유, 관대함, 공의로움 등과 같은 종교적 심성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몰입된 기도, 말씀 묵상, 금식과 피정 등과 같은 영적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영성은 팀워크나 공동체의 정신, 집단의 단결심이나 목적의식 등을 설명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 입신, 방언, 축귀, 신유, 예언 등과 같은 신비적인 은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에 제시된 [표 1]에는 다양한 영성의 개념을 분류하고 각 개념에 해당되는 영성적 형태, 그리고 그 실제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 1] 영성의 개념과 형태 그리고 사례

영성의 개념	영성의 구체적 형태	실제적 사례*
초월적 대상과의 인격적 교통	기도, 묵상, 금식, 피정, 찬미, 고백 등	사도요한, 엘리야 / 헨리 나우웬 / 이용도
차원 높은 품성이나 태도	사랑, 겸손, 은유, 관대함, 성결, 공명함, 믿음, 정직, 신실함 등	야고보 / 본회퍼 / 한경직
신비적인 경험이나 능력	방언, 입신, 축귀, 신유, 예언, 물아(沒我), 영매 등	베드로 / 선다 성, 위치만 니 / 김익두
직관적인 통찰과 인식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깨달음, 존재론적 인식, 사상과 정신	느헤미야 / 키에르케고르, 빅터 프랭클 / 함석헌

[표 1] 계속

영성의 개념	영성의 구체적 형태	심재적 사례*
신성한 삶의 동기	성육신, 완전지향성, 신과의 합일을 향한 의지, 궁극지향성	사도바울 / 존 헨리 뉴만 / 칼뱅
고난을 극복하는 초자연적인 힘의 원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함, 은혜를 의지함	에스터, 다윗 / 김진홍
초인적인 봉사와 사회행동	희생적 봉사, 공의로움에 대한 헌신, 공동체 사역	아모스, 다비다 / 테레사, 마틴 루터 킹 / 문익환
궁극적 진리를 향한 헌신	전도, 설교, 교육, 선포 등	사도바울 / 빌리 그래함, 찰스 스필런 / 이성봉

* 영성인물: 성서적 인물/서양인물/한국인물 순

신학적 관점에서 영성은 “일상과 일상의 이면, 즉 인간이나 피조세계의 내면 깊이에 있는 신비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영혼이 참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상을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최봉기, 1999: 20, 26). 또 레오날드(Bill J. Leonard)는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의존성이다(1988:79).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영성의 개념들은 다시 인격으로, 행위로 연결되어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은 겸손과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설명과 달리 영성에 대한 심리학적인 설명은 “다시 완전해지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허기와 갈증”이라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Anonymous, 1978: 18). 또 Brill은 영성을 “...신체적 조직들에 생명을 주는 활력소 또는 생기의 근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생활 속에서 단순한 욕구의 충족을 뛰어넘어 전체적 경험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자극과 기회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1978:7).

한편으로 사회과학 학자들은 ‘영성(spirituality)’을 “자신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와의 관계”로서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궁극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으로 설명한다(Derezotes & Evans, 1995: 43; Netting, Thibault, & Ellor, 1990: 6; Joseph, 1988: 444). 사회사업적 측면에서 영성을 개념화시키려 시도했던 칸다(Edward R Canda)는 영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했다(Canda 1988b p.41):

- 1)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부분이다.
- 2) 개인적 성장과 환경과의 관계를 통하여 표출된다.
- 3)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통합한다.
- 4)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 5)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 6) 인간의 고통과 소외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7) 매일의 일상적 부분들을 초월적 부분들과 통합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성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관점에 따라 영성을 설명하는 그 초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정리하였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절대자에 대한 신앙과 인격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철학적 관점에서는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인식에 초점을 두며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행동과 느낌에 초점을 두는 한편 문화인류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초월적 능력에 의해 비롯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과 표현들 그리고 영향들에 초점을 둔다. 이 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영성은 단순히 ‘종교(Religion)’의 개념과 중복적 개념으로 나타난다.

[표 2] 영성의 개념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른 초점의 변화*

개념의 관점	개념의 초점
신학적	초월자 그리고/또는 내제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격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
철학적	우주의 질서와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 그리고 최종적인 해석에 초점을 둔다.
심리학적	자신이 정의한 자신보다 강한 종교적 힘과 관계된 행동이나 진술 그리고 정신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
문화인류학/사회학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주장한 능력이나 힘과 관계된 상징들, 신념들, 의식들, 그리고 이야기들의 구조적인 형태에 초점을 둔다.

* E. R. Canda & L. D. Furman (1999),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NY: The Free Press 45. 내용을 편집함

2. 영성과 종교의 개념적 차이

영성에 대한 연구는 종교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복잡 미묘하다. Canda는 현대 사회사업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영성(spirituality)과 종교(religion)를 구분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설명된 개념과 같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영성이 외적 행동이나 태도 또는 생활로 나타날 때 '경건(piety)'이 되고, 이것이 집단화되었을 때 '종교(religion)'가 된다(Canda, 1989; Cowley, 1993). 종교는 영성에 근거한 경건이 오랜 전통을 거쳐 전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공동체와 함께 공유해온 영적인 내용들에 대한 신념들과 행위들, 그리고 경험들의 구조화된 형태"이다(Canda & Furman, 1999: 316). 따라서 종교는 영성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형식과 구조이지 영성 그 자체는 아니다.

물론 종교가 영성을 표현하는 도구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영성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종교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종교와 영성은 구분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투명인간과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형겁과 같다고 본다. 종교는 영성을 감싸고 있는 겹데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회사업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종교보다 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 접근 보다는 영성적 접근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 영성과 종교성을 기준으로 한 인간유형*

영적 경향		종교적 경향	
		Positive	Negative
영성	Positive	영적이며 종교적인	영적이며 비종교적인
	Negative	비영적이며 종교적인	비영적이며 비종교적인

* Winship, Jim "Infus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to Social Work Practice." (2002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함). <http://www.nacsw.org/AudioConf/042902handouts.htm>

- 1) 영적이면서 종교적인: 내면적으로 영성을 소유하고 거기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종교적 단체와 의식(儀式)에 참여하며 교리적 체계를 받아들임.
- 2) 영적이면서 비종교적인: 내면적으로 또 삶의 과정 속에 영성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지만 종교적 단체나 의식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고 교리적 체계에서 자유로움.
- 3) 비영적이면서 종교적인: 영성적인 특성을 소유하지 않고 사회적 또는 이기적 목적으로 종교적 행위에 참여함.
- 4) 비영적이면서 비종교적인: 영성적인 특성을 소유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행사나 체제에 관여하지 않음.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일 때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영적이면서 종교적이거나 영적이면서 비종교적인 유형의 클라이언트라면 영성적 접근이 기능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이 논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비영적이면서 종교적인 사람이나 비영적이며 비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성 방면에 의식을 갖게 될 때에 긍정적인 교과를 가져올 희망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III. 사회복지/사회사업 실천에 대한 기독교 영성적

접근의 필요성

1. 기독교사회복지사의 건전한 복지활동을 위해서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되던 복지사업들 중에 진실한 영성에 기초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서 사회로부터 부정적으로 질

타를 받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순수하고 진실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한 봉사나 복지운동은 그 시작부터 비윤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회복지사업을 교회성장의 한 방법이나 도구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발견되지만 스토트는 이러한 시도를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한다(1998: 33~34).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건전한 봉사정신을 갖춘다면 한국의 사회복지양상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봉사신학의 부재와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의 의식부족을 문제시해 왔다(김동배, 1993: 107; 이원규, 1994: 241-243; 성규탁 외, 1991: 47; 유장춘, 2000: 111~115). 그래서 기독교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로서 봉사신학의 정립과 교인들의 의식개선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건전하고 분명한 봉사적 영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래서 박종삼은 이러한 활동을 ‘복지이념’의 자원동원이라 하고 교회사회사업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써 설교, 신앙고백, 성경공부 등을 전문사회사업의 사회행동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2002: 445).

[표 4] 영적으로 민감한 사회사업가의 윤리적 특징

윤리적 가치	내용	영적으로 민감한 사회복지사의 특징
서비스	사회사업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문제를 처리하는데 우선적 목표를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위한 서비스를 우위에 둔다. - 클라이언트가 가진 갈망과 우선순위를 따라 물질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욕구를 포함한 인간의 필요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가치, 그리고 기술들을 연결시킨다. - 특별한 재정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전문적 기술을 자원하여 활용하도록 용기를 낸다.
사회정의	사회사업가는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도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변화, 특히 취약계층과 박해받는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한 변화를 추진한다. - 빈곤, 실업, 차별, 그리고 여러 형태의 사회적 불의에 관한 이슈에 민감하다. - 억압받는 사람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역동적 지식과 민감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 곤궁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서비스, 그리고 자원들을 향상하도록 보증하고 기회의 균등과 모든 사람의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영적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갈망한다.

[표 4] 계속

윤리적 가치	내용	영적으로 민감한 사회복지사의 특징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사회사업가는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 각각의 사람을 관심과 존경의 태도로 다루고,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 종교적 영적 다양성, 그리고 인간의 서로 다른 다양한 형식에 주의를 기울인다. -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기결정을 하도록 증진시킨다. - 클라이언트가 변화의 기회와 자신의 욕구를 처리하는 역량을 향상하도록 원한다. - 클라이언트와 보다 넓은 사회에 대한 이중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인간 관계의 중요성	사회사업가는 인간 관계의 중심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화의 중요한 매개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 개인, 가족, 사회적 집단, 조직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복지를 향상, 유지, 회복, 증진을 위한 노력을 목적으로 사람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길 원한다.
성실성	사회사업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양식 있는 행동을 한다.	- 전문가의 목적과 가치, 윤리적 원리와 기준, 그리고 그것들이 실천에 적용되는 양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식한다. -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자신이 관계하는 조직의 윤리적 실천을 증진한다.
역량	사회사업가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실천하며 자신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개발한다.	-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확대하길 노력하고 그것들을 실천에 적용하고자 한다. - 전문성의 지식적 기반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 E. R. Canda & L. D. Furman (1999),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NY: The Free Press 30~34의 내용을 편집함

제시된 [표 4]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한국 대학의 사회복지교육에서 윤리와 가치에 대한 교육은 별로 중요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은 이타적 윤리의식 위에 전문적 지식이 겸비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영성은 사회복지사에게 전문가로서의 진정한 품성과 윤리의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영성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함께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

한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Canda 1988a 41,43) 현대 사회사업의 전문성이 기초하고 있는 합리주의와 과학정신은 이 영적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타부시하여 왔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돌입한 오늘에 와서 이는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sherwood, 1998: 82)⁵⁾. 보이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 또 과거에 입증할 수 없던 것들이 현재에 와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증되기도 한다. 영성이 바로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북미사회사업기독교인협회(NACSW: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에서 영성과 사회사업실천의 통합을 강연한 윈쉽(Winship, 2002: 3)은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에 대한 영성적 접근의 효과를 제시한다:

1) 종교적 신념들은 곤란을 이기는 강점이 될 수 있다. 유색인종에게 나타나는 영성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자신의 영적 신념에 근거한 사람들이 초월적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다 자신의 삶에 보다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Thomas, 2000).

2) 사람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보다 강력한 윤리적 강령을 소유하게 된다. 종교적 신념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들과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Pellebon, 1999: 229-238).

3) 종교적 신념은 반사회적 또는 무책임한 행동을 억제시킨다. 최근의 조사된 자료들은 종교인들이 범죄, 흡연, 음주, 마약사용 등, 반사회적 또는 무책임한 행동이 비교적 정도가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Cnaan,

5)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CSWE의 연례 프로그램 회의에서 "Conflict Between Religious and Professional Commitments: Resolving a Social Work Education Dilema"라는 주제 아래 다루어졌으며 1992년에는 CSWE와 국제사회사업대학협회가 회의를 열고 "Spirituality and Social Work: Issues for Teaching and Curriculum Development"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1999).

4) 지역사회와 신앙인들은 곤란한 때를 당하고 있는 교회 회원들을 돕는 경향이 있다. 교회의 회원은 비교인들보다 생애의 중요한 주제들에 있어서 훨씬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는 윤리적 강령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5) 기도와 영적 실천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들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 조사의 결과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하여 믿음, 기도, 그리고 다른 영적 실천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중독, 암, 그리고 다른 신체적 질병들과 정신건강의 문제들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그리고 종교적 실천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자원이라는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 (Koenig, 1999).

3. 한국교회의 왜곡된 영성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향한 영성적 접근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실천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왜곡된 영성운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성령운동은 강신무당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영성운동은 비사회적이고 비역사적임과 동시에 치병, 초복(招福), 문제해결 등 매우 기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이기적인 경향성을 가졌다다는 것이다(김창모 26-29). 이러한 이기적인 경향성은 원래 기독교 영성이 지향하는 공동체성 즉 가난한 자에 대한 경제적 나눔과 정의 청지기 정신, 회년 정신 등과는 상치 되는 것이다

60년대를 중심으로 볼 때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영향을 준 영성의 특징은 축사(逐邪)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능력” 혹은 ‘권위’로 접근되고 이해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복음의 윤리적, 지적 요소를 결여한

채 복음의 물리적 능력만을 강조한 편협한 영성이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무속신앙의 영적, 도덕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무속적 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성경공부 열풍이었으나 이 역시 실천성과 도덕성이 부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기복신앙과 결합하여 한국교회로 하여금 신앙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도취적인 신앙을 갖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최봉기, 156-161). 90년대와 함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영성은 찬양과 경배를 비롯한 연예적 공연문화 양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역시 실천성과 도덕성을 배양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영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 분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고독과 침묵, 기도의 조건들이 요청되는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예배와 의식,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불가피하다(최봉기, 25). 이러한 한국교회의 왜곡된 영성을 회복시키고 영성의 참된 능력과 에너지를 사회적 복지를 위해 수용하기 위해서는 봉사적이고 공동체적 영성을 진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사회심리적인 문제, 사회제도적 및 구조적인 문제, 사회문화적인 문제 등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방법론들은 다분히 심리적이고 정책적이며 문화적 접근들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점, 즉 사회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도 배제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이라고 폄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과학적 근거는 사실상 주관적 견해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사회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사회의 영적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사회문제에 대한 영적통찰력과 영적조력이 절실하게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됨으로서 나타나는 영적인 위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심리적 처방들이 내려졌으며 강경한 사회정책이나 문화적 개선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강경하게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사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버리고 그 관계가 멀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적인 회개와 성서적 원리의 회복, 기도와 섬김, 공동체 운동과 같은 영적 접근을 요구하게 한다.

IV. 영성과 사회복지활동의 관계

1. 성경적 관점

사회복지활동과 영성의 관계에 관한 가장 좋은 성서적 설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3)”는 말씀이다. 이 간단한 성구에서 대신(對神)관계 즉 영성과, 대(對) 클라이언트관계,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대자아(對自我)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돌보고, 동시에 자신을 세속적 현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성서에서 최고의 영성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짧은 공생애 가운데에서 그 분은 약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꺼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씀하셨다(최봉기, 1999: 63).” 예수님 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영성이 깊은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⁶⁾

이러한 원칙은 구약의 율법적인 규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과 같은 규정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휴식을 누리고 얻게 하는 구조적 장치였다(김창모, 2003: 112).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영성적인 요소와 사회복지적인 요소가 결합된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느끼고 명상하는 영적인 삶은 휴식과 여가의 삶을 누리는 복지적 혜택임에 틀림이 없다.

2. 역사적 관점에서

교회사의 전통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영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영성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기도와 명상, 성결한 생활, 성령과 은사, 복음전도, 성육신, 그리고 사회봉사와 정의에의 거룩한 헌신들이 있었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일곱 집사, 제노아의 캐더린, 빈센트 드 폴, 로

6) 사례들) 예수 -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아브라함 -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1,2), 고넬료 -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행 10:1), 욥 -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교아를 건졌음이라”(욥 29:12), 다비다 -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행 9:36),

저 윌리엄, 요한 울만, 수잔 안토니, 알버트 슈바이처, 도로시 데이, 테레사, 말틴루터 킹, 장 바니에, 그리고 헨리 나우웬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사회복지사업적 영성의 전통을 소유하고 있다(포스터, 2000: 195~258; 최봉기, 1999: 69~77).

이러한 기독교의 사회복지사업적 전통은 한국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상재,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손양원, 김재준, 함석헌, 김용기, 장기려, 문익환, 한경직 등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정의와 봉사적 전통을 따르는 영성의 인물들이 나타났다. 이런 인물 한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수백 개의 봉사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사업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대 영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테레사 수녀라면 그녀는 동시에 사회복지적 삶을 살아간 사람의 대가이기도 하다. 그녀는 “기도는 신앙을, 신앙은 사랑을, 그리고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를 낳는다”라고 말한다(곤잘레스, 1997: 130). 몰트만이 주장했듯이 구원은 결과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1992: 72). 테레사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환자들의 몸을 만지고 악취 풍기는 사람의 몸을 만질 때, 예수님의 몸, 성체성사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그분의 몸을 만진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곤잘레스, 158). 예수님을 만지듯이 나환자들의 몸을 돌보는 수녀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영성이 담긴 봉사가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적 영성의 흐름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이 한국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왜곡된 이원론과 은사론, 축복론, 말세론, 그리고 교회성장 이데올로기가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진정한 영성은 빈곤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점차 기독교의 힘도 약화되었다. 영성의 사회복지를 향한 접근은 한국교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기독교사회복지인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7) 몽고메리제일침례교회의 사회복지자인 Jane Ferguson은 “교회와 지역사회 양자가 다 같이 하나의 클라이언트 체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992: 56).

3. 신화적/철학적 관점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결편이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과 순종의 완결편이 된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가 부여된 것이다.⁸⁾ 이 십자가는 대신관계 즉 영성의 가장 완전한 표현임과 동시에 대인관계 즉 사회복지적 활동의 완전한 모델이기도 하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 클라이언트 중심, 감정이입, 자기결정, 타인수용, 그리고 비심판적태도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십자가의 영성을 받아들이는 사회복지사는 앞에서 이미 제시한대로 사회복지윤리와 가치에 충실한 전문가적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부활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말론적 관점에 있어서 부활과 내세에 대한 확신은 현실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기독교의 부활과 생명의 영성은 몰아(沒我)적 사회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중요한 전통으로 가지게 하였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이 부활적 영성은 이 땅위의 생애를 이타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성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다. 영적 실재(實在)는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삶의 표현을 기대한다는 데에서 역동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내적으로 인식

8)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되고 경험되면, 그것은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밖으로 표현되는 삶은 윤리적인 삶이요 봉사적 삶이면서 사랑과 겸손과 믿음의 삶이기도 하다(최봉기, 121, 209; Leonard, 1988:79).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영성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영성 = 복지

첫째로 영성의 삶 자체가 복지적이다. 사람이 깊은 영성을 갖게 되면 마음의 휴식과 평화, 정화(Catharsis), 의미와 희망의 발견, 재구조화(reframing) 등의 다양한 내적 기능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 적용기능들은 외적으로 파괴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제하며 윤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행동을 추구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협력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복지에 크게 영향을 준다.

2) 영성 = 복지활동의 동기

둘째로 영성은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영성적인 삶은 희생, 헌신, 나눔, 섬김의 성품을 갖게 하고 사회복지에 향한 소명을 의식하게 됨으로서 사회복지 활동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강열한 동기를 갖게 한다.

3) 영성 = 복지활동의 방법

셋째로 영성은 복지활동의 구체적인 도구가 된다. 영성은 사회복지 전문 관계에 필요한 감정어입이나 온정, 인내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정정, 정직,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 수용, 정의와 용기에 대한 확신 등 방법적 도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도나 말씀を通한 조언 등 영적 도구들을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V.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실천의 방법들

사회복지의 임상적 전문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 실천 과정에서 과연 영성적 접근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영성적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과학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서구사회에서조차도 영성의 영역은 무시되지 않는다. 최근 Gallup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근거하면 미국의 대중들이 정치적, 경제적, 정서적 위기를 맞이하는 시기에는 영적인 추구가 더욱 강열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Bartlett, 2003).⁹⁾ 그렇다면 삶의 위기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임상사회복지/사회사업 현장에서 영성적 접근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신비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였던 칼 융은 영적인 이슈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중년의 위기 이후에 분석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의 전반기에 영적 이슈들을 무시해온 사람들”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은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임상적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9) 2002년도에 Gallup국제기구에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인들은 신앙과 영성에 크게 위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97%의 미국인들이 자신은 종교적 또는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77%의 미국인들이 국가의 전체적 안녕이 나라의 영적 건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72%는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60%는 자신들의 삶의 모든 국면에 신앙이 관련된다고 말하고, 79.89%는 '내적 헌신(하나님, 초월적 권능과 성스러운 뜻에 헌신함)'을 갖고 있으며, 69.59%는 '외적 헌신(내적헌신으로 말미암아 타인과 지역 또는 사회 위한 봉사 에 헌신함)'을 한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74%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신다고 믿고 있고 67%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희망을 발견한다고 응답했다. 또 58%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신다면 비천한 일이란 없다고 믿는다

가 제공되는 과정에 실천되는 영적인 관여를 말하는 것이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 영적인 개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을 논하는 것이다.

1. 미시적 접근: 클라이언트의 영성에 대한 임상적 관여

임상적 도움과정에 대한 영성적 접근은 사실 오래 전부터 시도해 왔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실천되어 왔던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이나 치유 목회, 또는 기독교상담 등은 물론이거니와 프로이드와 아들러를 이어 비엔나의 제 3학과로 불리는 빅토 프랭클의 의미치료(logotherapy)의 이론과 실재는 영성적 접근에 많은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영성적 실천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입증하거나 결정되어진 바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1) 클라이언트와 연대하기(Engaging with Client):

효과적인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워커를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워커가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돌보아 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해야만 한다. 쉽게 말해서 존중된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노숙자들은 노숙자라는 특징외의 모든 다른 특징은 상실되고 만다. 이는 돌봄과 존중됨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임재의 사역의 중요성이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적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원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10) 여기에 제시된 미시적 수준의 영성적 접근 방법은 2002년 4월 29일에 실시된 NACSW Audio Conference에서 발표된 Jim Winship의 강의를 주로 참고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2) 통합적으로 사정하기(Holistic Assessment).

사정이란 환경을 평가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통합적인 사정이란 환경 전체(whole environment) 속에서 인간전체(whole person)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환경속의 인간'이란 개념에서는 흔히 문화와 신념의 문제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화적 신념체계 그리고 문화적 기대행동은 사람의 생각, 습관,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은 단순히 어떤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참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문제에서 더 나아가 그 공동체가 사람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주는 내용까지도 파악되어야 한다.

3) 능동적 경청(Active Listening).

사회사업가들은 점점 더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그녀에 대한 이해를 시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의미들을 부여하고 만들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능동적 경청의 과정에서는 워커의 의도적인 투영과 격려, 질문, 정서이입적인 공감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기표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영성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가 노출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경청을 함으로써 영적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다 밀도 있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영성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의 생애주기 속에서 종교적 활동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살펴서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의 말에서 영성적인 인식이 그 생활의 중심에 있는지, 신앙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양상은 어떤지 등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세계관과 이 세상의 삶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

을 찾는다. 그리고 세상의 안전에 관한 인식, 창조주에 관한 신념, 자아에 대한 관점 등이 흔들리거나 허물어질 수도 있다.

4) 개방형 질문을 통한 사정

“그것에 대하여 좀 더 말해주시겠어요?”와 같은 형태의 개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존중 하고, 자기결정의 기회를 부여하며,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할 수 있게 한다. 진실한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경우에 개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가 역할, 자신의 꿈과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들에 대한 독특한 개인으로서 지위를 얻게 한다(DeJong & Berg, 1998). 개방형 질문들을 통해 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힘과 자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종교적 부분의 특징적인 신념이나 신앙공동체의 참여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지요?” 또는 “무엇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게 합니까?”라는 질문들을 통해 영적 신념과 종교적 행위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누가 또는 무엇이 희망이나 힘을 당신에게 제공하는가?”
- “무엇이 당신에게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주는가?”
- “무엇을 하기 위하여 당신은 매일아침 침상에서 잠이 깨어 일어나는가?”
-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의 원천인가?”
- “당신의 희망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 “무엇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주는가?”
- “당신은 무엇을 희망하는가? 희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무엇이 당신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는가?”

5)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사정방법

임상적 서비스의 사정과정에서는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 Map)' 이나 '관심, 강점, 자원에 대한 사정표(ACSR: Assessing Concerns, Strengths and Resource)' 또는 영적 가계도(Spiritual Genogram) 등과 같은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이 도구에 영적인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심리, 사회적 영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지지망은 환경지도의 일종으로 사회사업실천에서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종이에 그려진 여섯 조각의 파이는 가족, 친구, 직장/학교, 이웃, 공식적 조력자들, 그리고 교회/사회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질문된다. 이 사회적지지망을 채워나가는 동안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지지 받는 자원들을 설명하게 된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교회나 종교적 조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할 때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과 함께 신앙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이 지지망은 후에 도움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별히 환경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때 "어떤 영역에서 더 도움 받기를 원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게 한다.

ACSR은 주택과 일상생활, 재정, 직장/교육, 사회적지원, 신체적/정서적 건강, 그리고 영적 안녕(일곱째는 기타 항목을 들 수 있음) 등 여섯 개 영역에 대하여 현재와 과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준비된 종이를 클라이언트가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영적인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게 한다. 일차적인 사정이 끝난 경우 영적 가계도 같은 것을 그리게 함으로써 세대간에 전달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상호작용할 수도 있다.¹¹⁾

11) 영적 가계도의 임상요법적 활용에 대하여는 Hodge, David, "Spiritual Genograms: A generational approach to assessing spirituality." *Families in Society*, 82(1), 2001. 35-48.을 참고할 것.

6) 임상적 과정에서 기도의 활용

기도는 하나님 또는 초월적 존재와 의사소통이다. 기도는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문화와 종교적 신념 그리고 사회계층, 다양성과 실천적 태도를 나타내는 보편적 도구이기도 하다(Washington & Moxley, 2001: 49-60). 이미 진행된 많은 연구결과들이 기도가 신체적 영적 건강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음주나 마약 등 자신의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하여 초점을 옮길 수 있게 한다고 믿고 있다. 분명한 것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기독교적 전통에 근거한 기도, 묵상, 명상 등이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내용을 제거한 세속적 전략들보다 훨씬 근원적 치료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이다(Richards & Bergin, 1997). 그러나 기도와 사회복지적 효율성은 반드시 비례한다는 증거는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영성적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실천여부에 관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갈랜드(Diana R. Garland, 1991:75-89)는 다음의 내용을 기도의 전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우리의 노력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 - 우리의 노력이 부적절하거나 실패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의 인도와 임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우리의 실천의 중심에 클라이언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세워졌다는 것 - 함께 기도할 때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삶의 상황에 대하여 직면하도록 돕게 된다.

- ③ 클라이언트가 설정한 영적인 자아와의 관계, 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들 간의 영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④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고 희망을 가지게 함 - 용서, 구속,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에 대한 약속들을 제시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서 기도를 가르칠 수 있다.

동시에 갈랜드는 기도의 부적절한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 ① 기도하는 동안 또는 끝났을 때에 기도가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이 술을 끊게 도와주십시오!” 라거나 “이제 기도했으니 반드시 금주해야 합니다.” 등)
- ② 기도가 클라이언트에게 워커의 영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워커의 영성은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
- ③ 워커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 기도가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

7) 로고테라피(Logo Therapy)

의미 중심(meaning-oriented)의 철학과 치료방법론은 1967년에 빅터 프랭클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 치료이론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인도주의적이고 영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많은 전문 분야에서 활용되었다(Barker, 1995).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아 「인간의 의미추구」라는 책을 저술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였다. 인간은 환경적 요인에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지만 최악의 상태에서도 저항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존중하였다.(프랭클, 1986: 23). 그리고 그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고 그것을 고

통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에너지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심리치료로서의 전문적 영역을 종교의 영역과 혼합하지 않았다. “로고테라피는 모든 환자에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의사의 세계관이 유신론적이든, 불가지론적이든 간에 모든 의사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프랭클, 145). 물론 종교의 문을 열어두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안하는 것은 환자에게 맡긴다. 즉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 자신에게 달린 문제로 남김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책임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반성제거와 역설지향의 기법들을 통하여 인간의 자기초월과 자기이탈 능력을 활용하게 한다. 환자가 사로잡혀있는 비현실적 강박증이나 공포증을 자기이탈을 통하여 반성하고 역설적으로 받아들여게 하여 오히려 자신이 문제 밖에 있음을 알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환자에게 자기의 증상에서 도피하려고 하거나,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오히려 증상을 강화시키는데 성공하면 증상은 경감되고 환자는 더 이상 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머 감각과 자기이탈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내적인 공허(existential vacuum)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공허를 채워주기 위하여 환자가 자기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와 가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의 존재의 로고스(logos)에 그를 직면하게 함으로서 극복하게 돕는 것이 로고테라피이다(프랭클, 149-168). 이러한 기법은 자기이탈이라는 특유한 인간 능력 즉 영적인 기능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2. 거시적 접근: 기독교의 봉사적 영성의 강화

거시적 사회복지의 영성적 접근을 위한 전략을 정리한다면, 먼저 신학자들은 봉사신학을 정립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고, 목회자들은 봉사를 주

제로 하는 설교와 성경공부, 기도회와 영성집회, 헌신예배 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인들은 기독교봉사 캠프, 기독교봉사 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또 기독교의 봉사적 영성 관련 서적의 제작, 배포, 그리고 더 나아가 봉사신학과 영성관련 지원사업과 행사들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¹²⁾

1) 봉사신학정립

기독교의 사회봉사적 정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들로서 디아코니아 신학, 하나님의 선교, 통전적 선교, 영성신학, 생명·사랑·섬김의 신학, 성육신 사상, 전인적 구원론, 삼위일체신학, 교회갱신 등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과 장애인, 노인, 아동, 외국인과 빈곤자 등 취약계층,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성서적 교훈들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한국의 현실에 접목시키며 교계에 널리 전파되도록 발표되게 한다.

2) 실천적 영성의 모델제시

현재 한국사회에서 탁월한 봉사적 영성을 소유한 신앙인들, 교회사의 뛰어난 족적을 남긴 사회봉사적 영성인물들, 외국의 위대한 사회봉사적 신앙인들을 찾아서 높이 존경받도록 노력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이 기독교인 삶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교회에도 테레사 수녀나 말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모델로 제시되고 존중되고 높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적공동체의 사회복지적 모델로서 청량리 다일공동체와 천사병원, 동두천 다비다집, 음성 꽃동네, 수원 나섬의 집(소년원 출신의 공동체 생활) 경기도 남양만 활빈교회 및 두레공동체 등도 제시될 수 있다. (김창모 113)

12) 사회복지의 거시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영성적 접근의 내용은 유장준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음을 밝힌다.

3) 이타적 목적을 위한 기도와 영성운동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은 일반적으로 축복이나 은사와 결부되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타적 목적을 위한 기도제목을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한다든지, 사회적 문제를 위한 묵상록을 작성하도록 인도하는 일, 고통 받는 소외계층에 관련된 성구로 작성된 일일성경읽기 교안 제작과 같은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봉사를 주제로 하는 목회적 활동에 대한 방법론 제시

목회자들은 봉사적 주제로 자주 설교해야 하고 자원봉사나 사회문제에 대한 성경공부모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민족문제나 선거, 통일, 세계기아문제나 아동, 노동자 등의 사회문제를 위한 기도회 열고, 김진홍 목사나 최일도 목사와 같은 인물들을 초빙하여 사회 영성집회를 실시하며, 사회봉사위원회나 사회사업부서의 헌신예배 등을 계획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적 영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기독교 교육에서 봉사를 위한 커리큘럼 도입

기독교 교육의 교과 내용에 사회봉사를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봉사를 위한 교육과 봉사를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기독교인의 봉사적 영성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봉사를 경험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수련회나 캠프, 또는 집단생활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활동이 하나의 이벤트나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의 한 장으로서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영성관련문서 및 문화활동

기독교사회복지운동으로서 기독교의 봉사적 영성 관련 서적의 제작, 배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을 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 사회봉사적 영상과 함께 진행되는 자선음악회 같은 행사를 주관

하고, 사회참여적인 백일장도 구상해 봄직하다.

7) 사회복지사의 영성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 내용에는 영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따라서 워커의 영성관련 요법이나 접근 방법론의 활용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임상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거나, 성경적인 교훈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제목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단정적이고 결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성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회사업을 위한 영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활동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의 실용적 적용 방법들을 미시적, 거시적 방법론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미시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영성적 접근 방법들이었고 거시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에게 영성적 접근을 하기 위한 영적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탐색은 두 개의 전제 위에 제시되었다. 하나는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면 그녀 또는 그에게서 사회봉사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영성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다분히 신화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합리적인 것이

고 동시에 과학적인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조사들이 점차 긍정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상 그리고 내용의 구성상 이러한 과학적 증거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영성적 접근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정밀한 조사와 검증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연구의 과제라고 본다.

위의 전제들은 영성과 사회복지의 연계에 대하여 두 갈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영성이 사회복지활동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문제영역에 대하여 영성적 접근이란 과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이다. 전자는 영성과 함께 실천되는 사회복지 방법론의 효율성에 대한 정교한 측정도구를 요구하고 후자는 영성적 접근방법론에 대한 개발과 그것에 대한 과학적 프로그램 평가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학계에서도 영성적 접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김창모, 「생명과 영성의 치유윤리」 한들 출판사, 2003
2. 몰트만, J. 「하나님 체험」 전경연 편, 복음주의 신학총서, 한신대학출판부, 1982.
3. 박종삼,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 문제의 제기」 교회사회사업학회자료집, 2002. 18-30.
4.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2002.
5.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9
6. 피터 L. 버거. 「현대사회와 신」 김쾌상 역. 기독교 서회. 1995
7. 프랭클, V. E. 「의미에의 의지: 로고테라키의 이론과 실제」 이봉우 역. 분도출판사, 1986.
8.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강좌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7 114-115.
9. 호세루이스 곤잘레스. 「마더 테레사, 말씀」 황애경 역. 디자인하우스 1997
10. Ballenger, Erma M. Racism: A Crisis of Spirituality. *Social Work and Christianity*, 1987. 14:2.
11. Bartlett, Jason. “Americans Filled with Spirit, Survey Finds,”
(<http://upenn.edu/pennnews/current/2003/040030/feature2.html>).
12. Brill, N. *Working with People: The Helping Process*. New York: J.B. Lippincott Co, 1973.
13. Bill J. Leonard,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the minister” *Formation for Christian Ministry*, Anne Davis and Wade Rowatt Jr. Ed. Louisville, KY: Review and Expositor, 1988, 79-94.
14. Canda, E. & Furman, L.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New York: Free Press. (1999).
15. Canda, E.R. “Spirituality, Religious Diversity,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Casework*, 69(4), (1988a). 238~247.
16. Canda, E. R. Conceptualizing spirituality for social work: Insights from diverse perspectives. *Social thought*, 14(1), 1988b. 30-46
17. Canda, E.R. “Religious Content in Social Work Education: A Comparative

- approach."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5(1), 1989. 36~45.
18. Cowley, A.S. (1993). "Transpersonal Social Work. A Theory for the 1990s." *Social Work*, 38(5), 527~534.
 19. Derezotes, D.S. & Evans, K.E..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in Practice: In-Depth Interviews of Social Work Practitioners." *Social Thought*, Vol. 18(1), 3 1995 9~56.
 20. DeJong, Peter and Berg, Insoo Kim, *Interviewing for Solution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8.
 21. Emotions Anonymous International, *Emotions Anonymous*. Saint Paul, MN, 1978
 22. Furman, L. D. "Recommendations for Infusing Religious and Spiritual Diversity Throughout the Social work Curriculum." Presented at: NACSW Convention 2002, Rochester, NY 2002.
 23. Hodge, David. "Spiritual Genograms: A generational approach to assessing spirituality." *Families in Society*, 82(1), 2001. 35-48.
 24. Joseph, M.V. "Religion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Casework*, 60(7), 44 (1988). 34~52.
 25. Keith-Lucas, Alan. *Giving and Taking Help*.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2.
 26. Koenig, Harold. *The Healing Power of Faith: Science Explores Medicine's Last Great Fronti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9.
 27. Netting, F.E, Thibault, J.M, & Ellor, J.W. "Integrating content on organized religion into macropractice course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6(1), 1, 1990. 5~24.
 28. Pellebon, Dwain A. and Anderson, C, Stephen. "Understanding the Life Issues of Spiritually-Based Clients." *Families in Society*, 87(3), 1999 229-238.
 29. Richards, P.S. & Bergin, A.E. *A Spiritual Strategy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30. Thomas, N.D. "Generalist Practice with People of Color." In Poulin, J. et ar, *Collaborative Social Work: Strengths-Based Generalist Practice*. Itasca, IL: F.E. Peacock Publishers. 2000.
 31. Washington, O & Moxley, D. "The use of prayer in group work with African-

- American women recovering from chemical dependency. *Families in Society*, 82(1) 2001. 49-60.
32. Winship, Jim "Infus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to Social Work Practice." 2002.
<http://www.nacsw.org/AudioConf/042902handouts.htm>
33. Barker, R. L. *The Social Work Dictionary*, NASW Press, 1995.
34. 「기독교대백과사전」제11권. 기독교문사 1985
35.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제 3판. 1990.

유장춘 교수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B. Th.)/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졸업(B. A)/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졸업(M.Div.)/Carver School of Church Social Work in SBTS 졸업(MSW)/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Ph. D)/침례교 목사/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송강사회복지관 관장/논문: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외 다수.